



엄 서 호 교수

이번호 릴레이 인터뷰 주인공으로 경기대학교 관광학부 엄서호 교수를 만나본다.

엄서호 교수는 농촌관광 마케팅 전문가로 관광모자론, 아마추어 관광 활성화론 등을 주창해 왔다.

지난 2004년에는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해양관광 포털 바다여행의 정보화전략을 수립하였고 2005년에는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사업 등에 참여해 우리나라 바다관광의 방향이 어업인이 중심이 되는 아마추어 관광 활성화에 초점이 모아지도록 유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엄교수와 웹메일 인터뷰를 실시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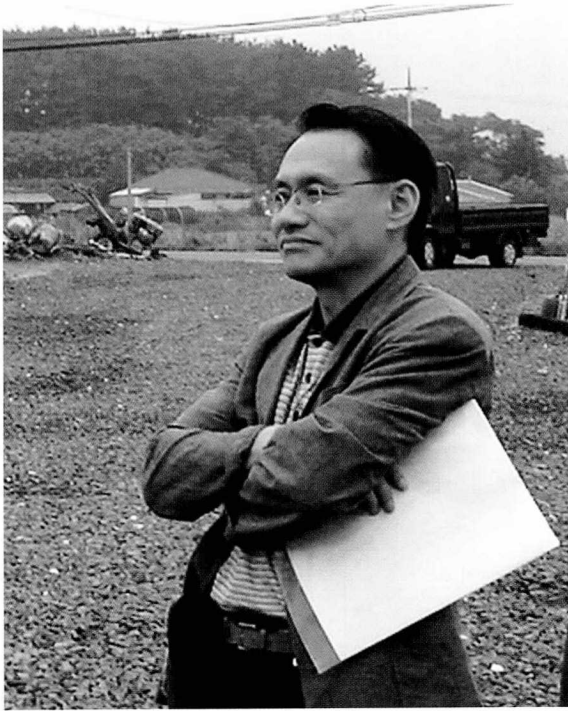
- 편집자 주 -

- 교수님의 최근 근황은 어떠신지요?

미국 인디애나주에 소재한 퍼듀대학교 호텔관광학과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7년 7월까지 이곳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인문사회적 특성과 물리적 환경에 어울리는 관광개발 방식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적 관광개발론 : 한국관광 제 빛 살리기'라는 제하의 원고를 최근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 최근 어촌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 분야에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전문가로서 어촌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를 통해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어촌 지역의 환경훼손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앞서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습성대로 어촌관광을 사전에 준비 없이 서둘러 받아드리게 된다면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서 정 말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잃는 것이 없이는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없다.” 는 것입니다.

어촌은 특히 환경적으로 그리고 인문 사회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대중관광과 같이 소비자를 전적으로 따라 가다각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어촌의 취약성이 바로 도시민을 끌어당기는 관광매력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존하면서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식의 싸구려 관광이 아닌 알아주는 사람만을 수용하는 고품질 관광이 필요하다는 의미이지요.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필요를 조금 늦추면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공급자 위주로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사람이 많이 오는 어촌이라도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존의 대부분 유원지와 같이 버려진 관광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 농촌관광과 어촌관광을 다 경험하셨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농촌관광 보다 어촌관광이 더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촌관광이 정적이고 지적인 요소에 호소하는 반면에 어촌관광은 활동적이고 감성적인 요소에 더욱 어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농촌관광 보다 어촌관광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계절성도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집중되는 어촌관광을 사계절로 분산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농촌마을에 비해 민박 경험도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또한 여타 어촌마을과의 차별화도 어족자원의 다양성 때문에 농촌마을에 비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였기 때문에 농촌마을 보다 더욱 성급하고, 무리하게 관광을 받아드리려 할 것입니다. 싸구려 관광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 어촌관광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가지입니다.

첫째는 현재 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품질관광을 통해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도록 하는 데 있으며, 둘째는 그

들이 원한다면 다음 세대까지 지속적으로 이곳에서 자리 잡고 살 수 있도록 품질관광을 통해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러한 선결조건이 충족되는 선에서 도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넷째로, 상기한 모든 목적이 어촌의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추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촌의 자연환경이 바로 어촌관광의 중요한 매력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촌관광의 목표는 도시와 어촌간 적정수준의 교류활동을 통한 어촌환경의 보존과 어촌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최근 해양관광 포털 ‘바다여행’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해양관광 포털은 어촌관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선진화된 도구입니다. 즉 도시 수요와 미지의 어촌을 시간과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서로 교류하도록 유도하는 최첨단 관광개발 방식입니다. 또한 인터넷 포털을 통해 도시의 급증하는 어촌관광 수요를 어촌의 환경조건과 인력수준에 맞추어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촌관광을 성취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마침 해양관광 포털을 실제로 주민입장에서 어촌관광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맡아 운영하게 된 점은 매우 잘 된 일입니다. 한가지 강조할 사항은 다른 관광포털과 같이 관광을 전업으로 하는 프로 관광업체를 띄우기 보다는 관광을 부업으로 하는 아마추어 관광(어촌주민)이 주축이 되어 스스로 참여/홍보하는 쪽으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콘텐츠개발/관리에 보다 더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촌어항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조언해 주십시오.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야 될 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축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어촌주민의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 ‘어촌관광 아카데미’ 등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도시와 어촌의 지속가능한 교류를 위해 해양관광 포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해양관광 포털을 활용한 어촌관광 활성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첨단기법이므로 이를 성공시키기 별도의 해양관광정보센터와 같은 별도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 조직은 무엇보다도 어촌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어촌주민을 콘텐츠 프로바이더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기한 어촌관광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과 융합하여 ‘사이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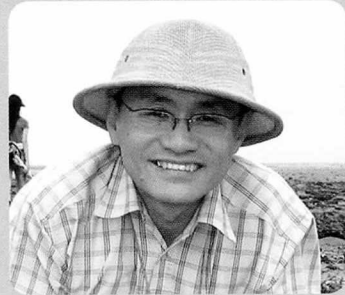
버 어촌관광 대학' 설립도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로 어촌관광을 대중관광이 아닌 품질관광의 차원에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특정지역을 '어촌관광 모델지구'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은 물론 각종 전문가 그룹과 연계하여 '어촌관광 모델지구' 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있는 '총괄기획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이미 행정복합도시 조성에 있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개인적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관광이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농촌관광, 어촌관광은 물론 문화관광, 생태관광 등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상 관광전문가라기 보다는 관광전도사의 입장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제 퍼듀대학교 연구년이 끝나 귀국하게 되면, 아마도 제일 열악한 조건에 있는 어느 지역이나 마을을 대

상으로, 주민들은 잘 모르지만 조물주가 이미 그들에게 선사한 특성을 발굴하여,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이나 지역으로 만드는 명소마케팅 일에 몰두할 계획입니다. 



◆ 엄서호 교수 약력 및 경력 사항

- 경기대학교 관광대학 관광개발 전공교수
-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관광개발학 박사
-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퍼듀대학교, 홍콩 폴리테크닉 대학 초빙연구원 역임
- 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 전문위원
- 농림부 정책평가위원 역임
- 해양수산부 해양관광 정책심의회 위원 역임
- 문화관광부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역임